

## [제954차 DAC 정례회의 결과 보고]

### I. 회의개요

제954차 DAC 정례회의가 2012년 11월 12일 OECD에서 개최되었다.

### II. 주요내용

- 제 48차 고위급회의(HLM) 준비
  - (포스트-2015 문서) 제 3장(실질사항) 관련, 현재 유엔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DAC은 DAC의 비교 우위 및 강점을 바탕으로 포스트-2015 개발의제 논의방향을 미리 앞서나가지 않고,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함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표명되었으며, DAC 차원의 지적 기여를 부각하고, 각료들에게 정보와 토론할 사안을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됨.
  - (양허성 해석) ODA 양허성(Concessional in Character) 해석에 대해 DAC 의장은 차별화된 할인율 (DDR: Differentiated Discount Rate) -25%을 사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ODA는 선별적 개발 차관 (Preferential Development Loans)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 타협안으로 제시함.
  - (의제 주석) 의제 주석 문서가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질문과 설명이 보다 간결해 질 필요가 있음.
  - (커뮤니케) 1차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이 아직 반영되지 못한 관계로, 금일 회의에서는 커뮤니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차후 비공식 회의를 소집하여 커뮤니케 문안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2012년 DAC 부의장 선출
  - 2013년 DAC 부의장으로 Neergaard Frode(덴마크), Fernandes Ana Paula(포르투갈), Okano Yukiko(일본) DAC 대표 선출이 참석자 만장일치로 확정됨.

### Ⅲ.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에서 의제 주석 문서는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제별 문서는 논의의 배경문서로 활용하며, 커뮤니케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것으로 문서별 기능에 대한 이해를 공유함에 따라, 참석자들은 의제별 문서의 내용에 대해 보다 유연성을 가진 것으로 관찰되며, 향후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커뮤니케의 내용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양허성 해석 문제에 대한 사무국 타협안에 대해 프랑스 등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타 회원국들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HLM직전까지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관찰됨.